노인진료비의 최신 동향

박영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분석팀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의료비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신체의 생물학적인 특성은 많은 돌봄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의료비의 지출을 증가시킨다.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전이가 되는데, 비용의 상당부분을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진료경향 모니터링시스템 상의 눈에 띄는 경향 중에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그 동안 진료경향 모니터링시스템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비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이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러한 노인 진료비의 동향을 노인의 일반적 특성, 의료기관 종별, 입원 및 외래구분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2012년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실적을 연단위로 산출하여 살펴보았다. 진료비 청구는 실제 진료가 일어난 시점 이후에 요양기관에서 늦게 청구하는 관계로 인하여, 심사실적은 2013년 4월까지로 한정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환자로 하였다. 의료기관 종별의 경우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약국, 기타로 하였으며,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병원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끝으로, 여기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노인진료비라 함은 65세 이상 인구의 의료비로 보험자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3. 분석결과

가.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일반현황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동향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도는 5백89만명으로 예측되고 있다(표 1). 노인인구증가율은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2년도의 경우는 4.1%였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도에는 11.8%이었다. 2012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총 진료비는 18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9년 기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체진료비중 노인총진료비의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의 경우는 34.3%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1.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일반현황

(단위: 10억원, 천원,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노인인구(A) [1]	5,052	5,256	5,452	5,656	5,890
노인인구증가율	-	4.0	3.7	3.7	4.1
노인인구 구성비율(A/전체인구[1]*100)	10.3	10.7	11.0	11.4	11.8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 [2]	12,517	14,150	15,872	17,153	18,341
전년대비 총진료비 증가율	-	13.0	12.2	8.1	6.9
전체진료비 [2] 중 노인의 총진료비 비율	31.2	31.7	32.6	33.3	34.3
노인1인당 연간진료비(천원)(B) [3]	2,478	2,692	2,911	3,033	3,114
국민1인당 연간진료비(천원)(C) [3]	819	909	984	1,035	1,068
국민1인 대비 노인1인 연간진료비의 비(B/C)	3.0	3.0	3.0	2.9	2.9

주 1 : 노인인구는 통계청에서 2013년에 발표한『국내통계-주제별통계의 장래인구추계』보고서에서 참고하였다.
주 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 총액으로 보험자 및 환자본인 부담금의 합계이다.
주 3 : B와 C는 각각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노인인구와 전체진료비/전체인구이다.

나. 환자 특성별 진료실적

표 2는 연간 한번이라도 의료이용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를 산출한 것이다. 2012년도의 총 환자수는 약 5백9십 만명이었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5.1%를 보이고 있다. 환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매년 많았으나, 환자수 증가율은 남성이 높았다. 2012년도의 경우 남성과 여성 노인환자 증가율은 각각 5.9%

와 4.6%이었다. 2012년도의 경우 85세 이상 고연령층 노인환자의 비율 증가율이 9.0%로 65-74세, 75-84세 구간의 3.7%와 7.0%보다 높았다.

표 2. 인구학적 특성별 환자수

(단위: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환자수	증가율	환자수	증가율	환자수	증가율	환자수	증가율	환자수	증가율
전 체		5,062	-	5,270	4.1	5,459	3.6	5,651	3.5	5,939	5.1
성별	남성	2,030	-	2,125	4.7	2,213	4.1	2,304	4.1	2,440	5.9
	여성	3,032	-	3,145	3.7	3,245	3.2	3,347	3.1	3,499	4.6
연령	65-74	3,360	-	3,445	2.5	3,482	1.1	3,529	1.4	3,660	3.7
	75-84	1,390	-	1,489	7.2	1,613	8.3	1,734	7.5	1,855	7.0
	85+	313	-	335	7.2	363	8.4	388	6.9	424	9.0

주: 표 1의 노인인구는 통계청 예측치이며, 표2는 청구자료의 환자수로 차이가 있다.

표 3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내원일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적으로 내원일수 증가율이 환자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었으며, 성별은 남녀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었다. 연령구간별로 보았을 때 75-84세, 85세 이상 구간에서 전년대비 내원일수 증가율이 환자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표 3. 인구학적 특성별 내원일수

(단위: 백만일,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내원일수	증가율	내원일수	증가율	내원일수	증가율	내원일수	증가율	내원일수	증가율
전 체		331	-	358	8.3	379	5.8	394	4.0	417	5.7
성별	남성	119	-	130	8.8	138	6.7	145	4.5	154	6.5
	여성	212	-	229	8.0	241	5.2	250	3.7	263	5.2
연령	65-74	215	-	228	6.0	234	2.7	235	0.3	242	2.9
	75-84	98	-	110	12.3	121	10.5	133	9.4	145	8.9
	85+	18	-	21	13.6	24	13.3	27	12.2	30	14.2

표 4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비를 살펴본 것이다. 대략적인 노인진료비는 2012년의 경우 18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의 증가율이 내원일수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녀의 진료비 증가율이 7%대로 비슷하였으나, 연령구간의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었다. 2012년도의 경우 75-84세,

85세 이상 구간에서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10.6%와 17.8%이었다.

표 4. 인구학적 특성별 진료비

(단위: 10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진료비	증가율
전 체		12,517	-	14,150	13.0	15,872	12.2	17,153	8.1	18,341	6.9
성별	남성	5,020	-	5,676	13.1	6,376	12.3	6,911	8.4	7,397	7.0
	여성	7,497	-	8,474	13.0	9,496	12.1	10,242	7.9	10,943	6.9
연령	65-74	7,816	-	8,602	10.1	9,299	8.1	9,649	3.8	9,941	3.0
	75-84	3,878	-	4,554	17.4	5,354	17.6	6,066	13.3	6,707	10.6
	85+	824	-	993	20.6	1,219	22.7	1,438	17.9	1,693	17.8

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실적

요양기관 종별 65세 이상 노인 환자수 진료실적을 살펴보았다(표 5). 환자수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 노인환자의 약 31%와 30% 정도가 각각 약국과 의원을 이용하였다. 종합병원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수는 대략 12%,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약 8% 수준이었다. 전년대비 환자수 증가율을 살펴보았을 때, 보건기관 등 기타기관을 제외하면 2009년을 기점으로 환자수 증가율은 모든 종별에서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도에 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높았으며, 3개 종별의 경우 전년대비 증가율은 대략 7-8% 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표 5. 요양기관 종별 환자수

(단위: 천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환자수	%
종별 구분	전체	15,198	100.0	16,084	100.0	16,765	100.0	17,398	100.0	18,375	100.0
	상급	1,013	6.7	1,175	7.3	1,268	7.6	1,316	7.6	1,426	7.8
	종합	1,696	11.2	1,787	11.1	1,920	11.5	2,042	11.7	2,199	12.0
	병원	1,633	10.7	1,796	11.2	1,917	11.4	2,044	11.7	2,218	12.1
	의원	4,740	31.2	4,942	30.7	5,120	30.5	5,292	30.4	5,559	30.3
	기타	1,267	8.3	1,323	8.2	1,290	7.7	1,271	7.3	1,262	6.9
	약국	4,850	31.9	5,061	31.5	5,250	31.3	5,433	31.2	5,711	31.1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	전체	-		5.8		4.2		3.8		5.6	
	상급	-		16.0		7.9		3.8		8.4	
	종합	-		5.4		7.4		6.4		7.7	
	병원	-		10.0		6.8		6.6		8.5	
	의원	-		4.3		3.6		3.4		5.0	
	기타	-		4.5		-2.6		-1.5		-0.7	
	약국	-		4.4		3.7		3.5		5.1	

표 6은 의료기관 종별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비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의료기관 환자수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병원과 약국환자의 진료비가 각각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8년과 2009년도에는 약국에서의 진료비 발생이 병원을 상회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병원보다 낮아졌다.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았을 때, 약국 및 기타 기관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은 감소하였으나, 병원에서의 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과 2010년도 21%에 비해 2011년도에는 14.4%로 낮아졌다가 2012년도에는 16.1%로 다시 증가하였다.

표 6.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단위: 10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진료비	%	진료비	%	진료비	%	진료비	%	진료비	%
종별 구분	전체	12,517	100.0	14,150	100.0	100.0	100.0	17,153	100.0	18,341	100.0
	상급	1,737	13.9	2,048	14.5	14.5	14.3	2,374	13.8	2,606	14.2
	종합	2,235	17.9	2,328	16.5	16.5	16.7	2,880	16.8	3,091	16.9
	병원	2,259	18.0	2,742	19.4	19.4	21.0	3,808	22.2	4,420	24.1
	의원	2,626	21.0	2,921	20.6	20.6	19.9	3,373	19.7	3,608	19.7
	기타	120	1.0	131	0.9	0.9	0.8	136	0.8	133	0.7
	약국	3,540	28.3	3,980	28.1	28.1	27.3	4,582	26.7	4,482	24.4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	전체	-		13.0		12.2		8.1		6.9	
	상급	-		17.9		11.1		4.3		9.8	
	종합	-		4.1		13.7		8.8		7.3	
	병원	-		21.4		21.4		14.4		16.1	
	의원	-		11.2		8.0		7.0		7.0	
	기타	-		9.3		2.3		1.3		-1.8	
	약국	-		12.4		8.9		5.7		-2.2	

라. 입원 및 외래 진료실적

노인환자의 입원, 외래 및 약국의 내원일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래 내원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이 전체의 30% 수준, 그리고 나머지가 입원이었다(표 7). 전년대비 내원일수 증가율은 입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2010년도와 2012년도에 각각 12.3%와 11.8%의 증가율을 보였다. 외래와 약국의 경우는 2009년부터 그 증가율이 감소하다가 2012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입원 및 외래, 약국 내원일수

(단위: 백만일,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내원일	%	내원일	%	내원일	%	내원일	%	내원일	%
입원 외래	전체	12,517	100.0	14,150	100.0	15,872	100.0	17,153	100.0	18,341	100.0
	입원	5,228	41.8	5,916	41.8	6,871	43.3	7,545	44.0	8,381	45.7
	외래	3,748	29.9	4,254	30.1	4,668	29.4	5,026	29.3	5,478	29.9
	약국	3,540	28.3	3,980	28.1	4,333	27.3	4,582	26.7	4,482	24.4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	전체	-		13.0		12.2		8.1		6.9	
	입원	-		13.1		16.1		9.8		11.1	
	외래	-		13.5		9.7		7.7		9.0	
	약국	-		12.4		8.9		5.7		-2.2	

표 8은 입원 및 외래, 약국진료비와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진료비는 내원일수와 달리 입원, 외래, 약국 순으로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도 입원에서의 비중이 전체의 45.7%로, 2008년도 41.8%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외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였으며, 2008년도부터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반면 약국에서의 진료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11년도에 비하여 2012년도에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입원과 외래에서 각각 11.1%와 9.0%로 증가하였으나, 약국에서의 진료비는 전년대비 -2.2%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입원 및 외래, 약국 진료비

(단위: 10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진료비	%	진료비	%	진료비	%	진료비	%	진료비	%
입원 외래	전체	12,517	100.0	14,150	100.0	15,872	100.0	17,153	100.0	18,341	100.0
	입원	5,228	41.8	5,916	41.8	6,871	43.3	7,545	44.0	8,381	45.7
	외래	3,748	29.9	4,254	30.1	4,668	29.4	5,026	29.3	5,478	29.9
	약국	3,540	28.3	3,980	28.1	4,333	27.3	4,582	26.7	4,482	24.4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	전체	-		13.0		12.2		8.1		6.9	
	입원	-		13.1		16.1		9.8		11.1	
	외래	-		13.5		9.7		7.7		9.0	
	약국	-		12.4		8.9		5.7		-2.2	

마. 지역별 진료실적

표 9는 지역별 총내원일수와 총진료비, 그리고 각각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총 내원일수는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높았으며, 전년대비 총내원일수 증가율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09년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도에 다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 인천, 경기

지역 순으로 높았으며, 각각 대략 8%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2년도 총진료비의 경우도 서울, 경기, 부산 순으로 높았다. 전년대비 총진료비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2009년을 기점으로 해서 2012년도까지 증가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년대비 총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 부산, 인천 순이었다.

표 9. 지역별 총내원일수와 총진료비 및 증가율

(단위: 십만일, 십억원, %)

구분	2012년도 총내원일	전년대비 총내원일 증가율				2012년도 총진료비	전년대비 총진료비 증가율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전체	4,166	8.27	5.75	3.99	5.68	18,341	13.0	12.2	8.1	6.9
서울	733	8.74	6.29	4.36	6.32	3,987	12.0	11.2	6.7	5.9
부산	363	8.57	6.35	5.40	7.30	1,684	13.0	14.9	11.1	9.1
대구	223	9.30	5.93	3.56	6.37	1,058	13.2	11.8	6.4	6.5
대전	127	7.91	6.78	4.52	5.43	621	11.2	13.6	8.8	5.4
울산	65	8.49	6.90	4.29	6.42	291	13.4	13.1	7.7	6.1
광주	127	7.84	7.51	7.03	8.49	649	12.0	13.8	11.9	9.3
인천	174	9.38	6.42	4.92	7.22	745	14.2	13.3	9.0	8.7
경기	693	9.05	7.28	5.27	6.86	3,085	13.4	13.7	9.2	7.7
강원	137	8.10	4.85	2.79	4.36	576	12.0	9.6	7.0	4.7
충북	144	7.35	4.05	2.70	3.21	525	12.7	11.9	7.3	6.3
충남	222	7.07	3.89	2.22	2.97	759	13.9	10.6	7.0	6.3
경북	280	8.22	3.97	1.87	4.50	1,017	15.3	11.3	7.1	6.1
경남	303	8.01	4.62	2.52	4.90	1,185	15.5	11.3	7.6	8.1
전북	247	6.81	4.71	4.05	4.45	983	12.1	11.4	7.6	6.1
전남	266	6.97	5.28	2.73	3.94	962	12.8	10.9	7.5	6.5
제주	60	8.33	4.44	4.55	3.96	213	13.4	10.6	8.6	6.6

표 10은 지역별 2012년도 환자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그리고 이러한 두 지표들의 2009년도 이후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2012년도 환자당 진료비는 부산, 전북, 대전 순으로 높았으며, 평균적인 환자당 진료비는 약 2백28만원이었다. 전년대비 환자당 진료비 증가율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의 경우 충북, 광주, 경남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충남, 대전, 서울은 환자당 진료비가 전년에 비하여 줄어들었다. 2012년도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평균 4만4천원 이었으며, 서울, 광주, 대전 순으로 내원일당 진료비가 높았다. 전년대비 내원일당 총진료비 증가율은 그 증가폭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도의 경우 충남, 충북, 경남 순으로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고, 서울, 울산, 대전의 경우는 전년보다 내원일당 진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지역별 [1] 환자당 진료비, 내원일당 진료비 및 증가율

(단위: 원, %)

구분	2012년도 환자당 진료비	전년대비 환자당 진료비 증가율				2012년도 내원일당 진료비	전년대비 내원일당 총진료비 증가율			
		2009	2010	2011	2012		2009	2010	2011	2012
전체	2,285,141	8.2	7.8	4.4	1.6	44,028	4.4	6.1	3.9	1.2
서울	2,210,355	6.0	5.6	2.0	-0.4	54,397	3.0	4.6	2.3	-0.4
부산	2,985,753	8.0	10.5	7.0	3.3	46,413	4.0	8.0	5.4	1.7
대구	2,511,250	8.2	6.9	3.4	1.8	47,466	3.6	5.5	2.7	0.2
대전	2,558,951	6.5	8.9	5.0	-0.5	48,758	3.1	6.4	4.1	-0.1
울산	2,553,012	10.3	8.1	4.4	0.4	44,819	4.5	5.8	3.3	-0.3
광주	2,409,188	6.3	8.4	6.6	4.2	51,207	3.8	5.9	4.6	0.8
인천	2,130,902	9.4	8.0	4.3	2.4	42,903	4.4	6.5	3.9	1.4
경기	2,078,516	7.7	7.9	4.2	1.8	44,501	4.0	6.0	3.8	0.8
강원	2,052,559	7.5	5.9	4.2	0.7	41,937	3.6	4.5	4.1	0.3
충북	1,997,696	6.9	8.4	5.5	4.8	36,575	5.0	7.6	4.4	3.0
충남	1,904,311	11.0	8.2	4.8	-2.4	34,129	6.4	6.4	4.7	3.2
경북	2,052,166	11.8	9.6	6.3	2.6	36,293	6.6	7.0	5.1	1.6
경남	2,452,828	11.0	7.9	5.0	4.1	39,035	7.0	6.4	5.0	3.0
전북	2,823,453	9.9	9.4	5.2	2.5	39,705	5.0	6.4	3.4	1.6
전남	2,270,638	10.6	8.6	5.7	3.1	36,146	5.5	5.3	4.7	2.5
제주	2,529,917	8.0	5.7	3.4	1.6	35,460	4.7	5.9	3.8	2.6

주 1: 환자가 지역을 달리하여 요양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환자당진료비는 표 1에서의 1인당 연간진료비보다 작아진다.

4. 맺으며

지금까지 최근의 65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동향을 인구학적 특성, 의료기관 종별, 입원 및 외래, 지역적 특성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전체에서 노인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으로 높았으며,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5세 이상 인구의 총진료비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폭은 2009년도 13.0%에서 2012년도 6.9%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중 노인인구의 진료비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2009년도 31.2%에 비해 2012년도의 경우는 34.3%였다.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대략 3백11만원, 국민 1인당 연간진료비에 비하여 2.9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자수와 내원일수 증가율은 그 증가폭이 2009년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도에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환자수 및 내원일수 각각에서, 내원일수는 모든 연령구간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패턴을 보여주었다. 환자수, 내원일수, 진료비를 전년대비와 비교하였을 때, 각 연도에 그 증가율의 크기는 진료비, 내원일

수, 환자수 순으로 높았다.

셋째, 전체 환자의 약 30%가 약국과 의원을 이용하였고, 2012년도의 전년대비 환자수증가율은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8.5%와 8.4%로 가장 높았다. 전체 진료비의 발생은 약국과 병원에서 각각 24.4%와 24.1%였으며, 2012년도의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은 병원에서 16.1%로 가장 높았고, 약국의 경우에는 -2.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입원 및 외래, 약국별 진료실적의 경우, 2012년도에 내원일수는 외래와 약국에서 각각 54.5%와 28.9%가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입원에서 11.8%로 가장 높았다. 2012년도 진료비는 입원에서 발생한 것이 전체의 45.7%로 가장 높았고,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도 입원에서 11.1%로 가장 높았다. 특이한 것은, 약국에서의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2012년도에는 -2.2%로 줄어든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진료실적과 관련하여, 지역별 전년대비 총내원일수 증가율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2009년 이래로 그 증가폭이 감소하다가 2009년도 다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지역별 전년대비 총진료비 증가율은 2009년 이래로 계속해서 그 증가폭이 감소하였다. 2012년도 환자당 진료비는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내원일당 진료비는 크지 않았다. 2012년도 서울지역의 환자당 진료비는 충북, 충남과 함께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원일당 진료비는 가장 높았다. 전년대비 환자당 및 내원일당 진료비는 2009년 이래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지출은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의 과소 또는 과잉공급, 의료이용에 대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시설 관련 사회기반시설을 다양화하여 수요자가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과 필요에 맞는 시설을 택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급성기 병원의 입원수가에 비하여 수가가 좀더 저렴한 정부의 장기요양병원제도는 그러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증가하는 노인진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의료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2012년. 2013. 3.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주제별통계의 장래인구추계. Available from: URL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2013. 6. 20. 접속)